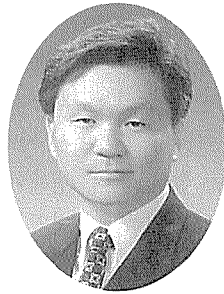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허 은 녕

〈 서울대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전임강사 자원·환경경제학 박사 〉

최

근의 외환·금융위기는 정유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엄청난 피해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정유산업에 주는 피해는 1인당 석유소비 세계 3위, 총 석유소비 세계 6위인 우리 나라 석유소비 규모를 감안할 때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위기가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IMF의 개입과 개방압력은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의 지분참여 증가라는 편법으로 위협에 빠져있는 정유산업을 구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힘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방법은 접어두고 국내 정유회사 자력으로 이를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언

급하고자 한다. 어차피 역경을 스스로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힘이 바로 경쟁력인 것이니까.

수년간의 협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97년 초부터 국내유가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또한 국내 석유산업의 자유화 조치도 같이 시행되었다. 유가 자유화와 석유산업 개방화가 같이 추진되어 나가는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석유산업의 구조변화가 필수적이다.

정유산업의 경우 '94년 이후 계속된 적자에다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영 압박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정유업계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중·단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조 조정의 방향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내정유산업이 취할 수 있는, 아니 취해야만 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다각화, 그리고 가격구조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효율개선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3단계 유통구조는 정유사의 원가절감 효과가 소비자로 모두 직접 전달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흡수 되어버려 국내 석유시장의 비효율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유업체의 과도한 경쟁은 엄청난 유통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게 함으로써 결국 시장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나 국내유통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통시장 진입으로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것이고, 경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지속과 시장개방은 정유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유통비용의 증가와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불려오게 될 것이다.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의 개선은 궁극적으로는 현행 3단계 유통구조를 정유회사-주유소의 2단계로 조정하고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유사의 원가절감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많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합리화와 합병, 수직계열화 등으로 유통구조의 간편화를 이루어 기대하는 효

과를 거두어야 하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저유시설과 공동물류단지, 그리고 송유관시설의 확충, 유조선과 탱크트럭의 대형화 등으로 물류비용을 줄이는 물류체계의 개선과 POS시스템 등의 정보관리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유통구조 운영을 성취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상표사용 계약기간의 확대 등을 통한 유통부문과 정유업체의 계열별 협력관계 강화와 셀프서비스점 확대를 통한 영업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국내정유업체의 손실은 석유화학 등 관련산업의 수익으로 메워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기초제품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정유산업의 자체 수익창조는 아직 요원함을 감안할 때 새로운 수익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는 필수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다.¹⁾ 중국 등 해외로의 정유업 진출과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기술의 수출, 그리고 유전개발사업에의 참여는 장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감소시켜 궁극적인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

기후변화협상 등으로 인한 환경규제에 대비, 상대적으로 청정한 에너지원인 LPG생산시설의 확대나 천연가스산업, 발전산업 또는 대체에너지 사업에의 투자도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발전산업에의 투자는 상당기간 수익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대가가 큰 만큼 그 위험도 또한 높고 초기투자비가 매우 크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타에너지사업 진출의 수익성 여부는

1) 통상산업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결국 정부의 에너지관련 장기정책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또한 정부가 세워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LPG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정책을 사용, 정유회사로 하여금 LPG 생산시설을 늘리게 하였다가 채 LPG 생산시설의 투자비용도 뽑기 전에 LNG나 CNG로 자동차 연료를 변환하여 버린다면 설사 천연가스 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더라도 투자 회임 기간이 긴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자본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추천 사업다각화 업종은 에너지 산업이 가지는 위험이 없거나 이와 다른 성격의 위험을 가지는 업종이다. 먼저 환율의 변동을 타지 않는 업종인 서비스업, 전통문화 관련산업과 환율상승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출무역업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투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운수업이나 창고업,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산업인 정보산업 등도 고려할 만한 업종이라 하겠다.

주유소의 편의점시설 설치와 타업종간의 제휴 등으로 인한 판매촉진과 사업다각화는 시장점유율 향상과 수익성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단기간에 잡을 수 있어 국내 석유산업이 가장 빨리 투자하고 있는 부문이다. 정유사 차원의 인적 서비스 교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주유소 별로 경영 다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경쟁력 향상방안 중 가장 손쉽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가격구조 조정을 통한 방법이다.

먼저 현재의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의 구성을 보면 크게 생산공급원가, 유통비용 그리고 정부부과금 등의 제세공과금(이하 공과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 중 유통비용과 공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의 생산공급원가(세전 공장도가격) 중 원유도입비용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원유도입비용은 크게 국제원유가와 환율이 주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국제원유가는 안정되어 있으나 최근의 외환위기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고유가 정책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율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유회사가 휘발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음을 나타낸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설정에는 그러나 환율변동과 국제원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비용(*risk premium*)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율변동이 국내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당 5원의 평균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 리터당 1원의 휘발유 가격 상승 또는 0.3%의 소비자가격 변동효과와 달러당 5원의 평균환차 변동이 있을 경우, 리터당 1.5원의 휘발유 가격 상승 또는 0.4%의 소비자가격 변동효과²⁾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미환율변동이 가지는 위험프리미엄은 달러당 3.94원³⁾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인상은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험프리미엄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하겠다.

국제원유가 또한 그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이 때

2) 한봉근, 1997. 10., 환율가격이 국내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석유협회보.
 신용삼, 1997. 12., 최근 환율이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석유협회보.
 3) 한국전력공사, 1997.9.,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4) 김태유, 윤윤중, 1997.3., 국제원유시장의 위험프리미엄 측정, 경제학연구 제45권 제1호 97-122.

우 크다. 국제 원유시장의 위험부담비용은 배럴당 평균 \$ 2.31 정도⁴⁾로 분석되었다. '86-'94 기간 중의 NYMEX시장 원유현물가의 월 평균 변동 폭이 배럴당 약 \$ 0.82임을 감안할 때 국내 정유 회사들이 국제 석유시장 변동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위험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은 매우 클 것이다.

위험부담비용이란 예상되는 환율변동에 의한 피해를 반영하는 수치이므로 이를 가격에 추가로 반영시켜야 정유업체가 환율/원유가 변동으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부담비용을 정유회사가 석유 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내정유업체로는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손실분을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은 좋으나 수익성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다경쟁은 결국 기업부실화로 이어지게 되고 자칫하면 기업 도산과 신규기업 진입비용 등 막대한 구조조정비용을 사회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위험부담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정유업체는 자구노력으로 인한 위험부담경감이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국가로서는 위험발생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격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정유산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는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원유도입비용의 안정이다. 국내정유업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업체의 품질검사 강화를 통하여 수입하는 정유제품에 대하여 품질우위 확보와 품질에 대한 신뢰도 확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정유업체는 장기적인 안목으

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석유류 재고의 적절한 관리기법의 개발, 현·선물시장의 변동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헤징 등의 위험분산 기법을 이용하면 기업이 안고 있는 국제원유가와 환율의 변동 등에서 오는 위험요인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감소는 정유산업의 원가 절감 폭을 크게 해주며 이는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유사 내부에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석유시장의 환경변화를 평가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정유사 스스로 이러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가 자유화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밀어닥친 이번 위기는 국내 정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앞당기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IMF의 요구가 아니라도 석유시장과 산업의 자유화·개방화의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또 계속 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본 글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다각화, 그리고 가격구조 조정의 세 방안을 설명하였다. 물론 이들 방안만이 능사가 아니며 또 이들이 해결되었다고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장 할 수 없지만 이 세 방안의 균형 있는 개선노력은 미래의 IMF 지원체제하의 석유산업 자유화 일정 하에서도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국내 정유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석유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유업체간의 협조가 필수조건이며, 소비자인 국민들도 국내 석유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